

칸트 미학의 현대적 쟁점들 (I)*

— ‘목적론과의 연관성’, ‘무관심성’, ‘숭고’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선규**

1.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예술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철학적 사상도 ‘이후의 삶(Nachleben)’을 살아간다. 물론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플라톤의 저작이 헬레니즘 시대의 신플라톤주의에서 새로운 사상적 동력을 얻고, 이어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 다시금 기독교 신학적 사유와 결합하여 서구 철학사의 주도적인 흐름을 형성하리라고 누가 미리 알았겠는가. 분명한 것은 예술이든 철학이든 이후의 삶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대로 예술과 철학의 이후의 삶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회문화적 관심과 이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것은 이후의 세대가 이전 세대에 대해 시도하는 새로운 (재)해

* 본고는 2010년 12월 11일 <한국칸트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동계학술대회 “현대철학과 칸트”에서 발표했던 글을 일부 축약하고 보완한 글이다. 값진 논평을 해 주신 조선대 공병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홍익대학교 교수

석과 비판의 산물이다. 요컨대 그것은 특정 시대의 예술가, 비평가, 이론가, 철학자 등이 자신들이 지닌 다양하고 시급한 당대적 문제의식 하에서 과거의 예술이나 철학과 '비판적 해석학의 대결'을 벌인 결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니체 사상이 그의 사후 짐멜의 '변증법적 생활학', 하이데거와 아스퍼스의 '실존철학', 벤야민의 '세속적 각성',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을 거쳐 20세기 후반 젤렌의 '철학적 인간학', 푸코의 에피스테메의 '고고학', 들뢰즈의 '생성의 철학' 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극적이며 변화무쌍한 '이후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알고 있다.

칸트의 미학 사상 또한 참으로 다채로운 이후의 삶을 살아왔다.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전개한 자연과 예술에 대한 미학적 논변은 이미 당대에 피테의 찬사문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젊은 실러가 집필한 일련의 시학적·미학적 산문들, 특히 실러의 역저 『미적 교육을 위한 서한』의 직접적인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또한 그것은 피히테의 '생산적 상상력(produktive Einbildungskraft)'을 경유하여 초기 낭만주의 사상, 특히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시적 반성'과 '낭만적 아이러니' 구상에서 새롭고 급진적인 형태로 진화하였으며, 이후 헤겔과 쇼펜하우어의 예술철학에도, 예술과 진리(인식)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칸트의 미학 사상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주목할 만한 이후의 삶을 살았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니체 저작에서 『판단력비판』이 지닌 철학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는데, 아마도 이를 계기로 그의 제자들이 제3비판서를 활

1) J. W. Goethe, *Zur Farbenlehre*, 『역재론』, 장희창 역, 서울: 민음사, 2006, pp.333-340.

2) F. Schiller, "Über die naive und sentimentale Dichtung", in: *Schillers Werke*, Bd.4, Frankfurt a. M.: Insel, 1966, pp.287-368;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1795),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 안인희 역, 서울: 청하, 1995

발하게 재독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⁴⁾ 또한 아도르노가 『미적 이론』에서 프로이트와 헤겔과 더불어 칸트의 미학 사상을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한편, 칸트는 20세기 영미 분석미학에서도 핵심적인 이론적 참조 지점의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1950-60년대 영미 분석미학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미적 태도론, 미적 대상의 이론, 예술의 본질에 대한 정의 등과 관련해서도 칸트는 흄과 더불어,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늘 토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역사적-해석학적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도 칸트의 미학적 논변은 헤겔, 아도르노, 벤야민, 니체 등과 함께 미학적 논의의 주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소위 문스터 학파의 '미적 총체성의 보상 이론(Kompensationstheorie)'⁵⁾과 부브너(R. Bubner)가 부각시킨 '미적 경험의 이론'⁶⁾ 등을 상기할 수 있다. 나아가 칸트는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들에게도 '마르지 않은 사상적 원천'이 되어 왔다. 칸트 미학 사상과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철학자들로는 들뢰즈, 데리다, 페리, 룬타르, 낭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사유 방법과 사상적 지향점에 있어

3) M. Heidegger, *Nietzsche*, Bd.I, Pfullingen, 1961, p.129.

4) W. Biemel, *Die Bedeutung von Kants Begründung der Ästhetik für die Philosophie der Kunst*, Köln, 1959; H.-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Bd.I, Tübingen, 1990

5) J. Ritter, *Landschaft. Zur Funktion des Ästhetisch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Münster, 1963; O. Marquard, "Kant und die Wende zur Ästhetik", in: *Zeits. f. phil. Fors.* 16, 1962.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로는, R. & D. Groh, *Weltbild und Naturaneignung. Zur Kulturgeschichte der Natur*, Frankfurt a. M.: Suhrkamp, 1991.

6) R. Bubner, *Ästhetische Erfahrung*, Frankfurt a. M.: Suhrkamp, 1989

7) G. Deleuze,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1963), 『칸트의 비판철학』, 서동욱 역, 서울: 민음사, 2006; L. Ferry, *Homo Aestheticus*(1990), 『미학적 인간』, 방미경 역, 서울: 고려원, 1994; J. Derrida, *The Truth in Painting*, trans. by G. Bennington & I. McLeod, Chicago/London: Univ. of Chicago Press, 1987. 룬타르와 낭시의 서자에 대해서는 아래 2.2 무관심성을 논의한 부분을 볼 것.

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예술의 고유한 진리성을 적극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늦어도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철학계와 미학계는 칸트의 미학적 논변을 상당히 활발하게 수용해 왔다. 영미철학에 가깝든, 유럽철학에 가깝든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늘 『판단력비판』을 헤겔의 『미학강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미학적 고전으로 보았으며, 그 핵심적인 논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논의해 온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연구 성과들을 일별해 보자면, 『판단력비판』의 기본 개념과 논점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해설한 성과⁸⁾, 칸트 미학의 생성 과정을 발전사적으로 추적한 성과⁹⁾, 미학적 세부 논점들을 세밀하게 재구성한 성과¹⁰⁾, 미학적 논변의 현재성과 이론적 잠재력을 새롭게 발굴하고자 한 성과¹¹⁾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제3비판서가 칸트 사상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 성과¹²⁾, 문화철학적 내지 정치철

8) 김광명, 『칸트 미학의 이해』,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____, 『칸트 판단력 비판 연구』,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6; 공병해, 『칸트 판단력 비판』, 울산대출판부, 1999. 최근 서울대 박종현 교수가 『판단력비판』을 새로 번역 출간함으로써 향후 칸트 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 수준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본고 또한 이 새 번역본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밝혀둔다.

9) 옹고, 『칸트 미학의 형성과정』, 『미학』 제26집, 한국미학회, 1999, pp.129-166; ____, 『칸트 전비판기의 합목적성 개념』, 『철학연구』 제44집, 철학연구회, 1999, pp.213-238.

10) 김상현, 『미감적 판단의 이용배반과 미감적 합리성』, 『시대와철학』 제14집,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pp.29-52; ____, 『칸트 미학에 있어서 감정과 상상력의 관계』, 『칸트연구』 제17집, 한국칸트학회, 2006, pp.1-26; 박태형,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유희』, 『미학』 제33집, 한국미학회, 2008, pp.27-60.

11) 김기수, 『칸트의 미적 세계관은 비판적인가 탈비판적인가』, 『칸트연구』 제24집, 한국칸트학회, 2009, pp.45-82; ____, 『칸트의 미적 상상력에 대한 고찰』, 『미학예술학연구』 제31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10, pp.297-335; 공병해, 『칸트 미학의 현대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제24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6, pp.49-74.

학적 관점에서 제3비판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성과¹²⁾, 그리고 프랑스 현대철학의 논의를 토대로 칸트 미학을 재평가한 성과¹³⁾ 등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칸트 미학의 이후의 삶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는 이제 그동안 집중적으로 재해석되었던 제3비판서의 몇몇 주요 논점들을 토론했다. 본고는 특히 쟁점으로 부각된 논점들이 지닌 다의성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 또한 이들의 이론적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들 논점이 한낱 '자나간 과거가 아니라 '살아 있는 현재'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¹⁴⁾ 아울러 본고는 이 논점들이 재해석되고 재조명된 '내적 동기, 즉 재조명의 저변에 놓여 있는 사상사적 변화와 이론적 관심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나마 반성해 보고자 한다. 물론 본고는 필자의 역량과 지면이 제한된 까닭에 칸트 미학의 '이후의 삶' 전체를 고찰할 수도, 주목해야 할 미학적 논점들 모두를 아우를 수도 없다. 일단 본고는 목적론과의

12) 대표적으로 한국칸트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집 『칸트와 미학』(1997)과 『칸트와 문화철학』(2003)이 있다.

13) 임성훈, 「비판과 반성으로서의 미학」, 『미학』 제48집, 한국미학회, 2006, pp.165-208; 박진, 「문화와 예술」, in: 『칸트와 문화철학』, 한국칸트학회 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김석수,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현대 철학」, in: 『칸트와 문화철학』, 한국칸트학회 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김선옥, 「정치적 판단이론의 입러신 문제」, 『철학연구』 제52집, 철학연구회, 2001, pp.209-223.

14) 김상환,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서울: 민음사, 1999, pp.219-282; 김광명, 「리오타르의 칸트 숭고미 해석에 대하여」, 『칸트연구』 제18집, 한국칸트학회, 2006, pp.121-152; 최소인, 「칸트와 리오타르」, 『포스트모던 칸트』, 한국칸트학회 편,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pp.113-150; 박배형, 「"무정적 헌신"로서의 숭고」, 『미학』 제57집, 2009, pp.37-64.

15) 본고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읽어볼 만한 논문으로, K. Engelhard, "Kant in der Gegenwartästhetik", in: *Warum Kant besser?*, ed. D. H. Heidemann & K. Engelhard, Berlin/New York, 2004, pp.352-382. 또한 회제가 편집하여 최근 출간한 공중 주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O. Höffe(ed.), *Kritik der Urteilskraft*, Berlin: Akademie, 2008.

연관성, 무관심성의 계기, 숭고의 미학 등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논의의 진행하고자 하며, ‘공동감’, ‘인식 일반’, ‘미적 이념’, ‘도덕성의 상징’과 같은 다른 중요한 논점들은 후속 논문에서 계속 다룰 계획이다.

2. 칸트 미학의 현대적 쟁점들과 그 역사적, 예술철학적 함의

2.1 미적 판단과 목적론의 연관성

먼저 「판단력비판」의¹⁶⁾ 전체 내용과 관련된 미적 판단과 목적론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이 문제는 일견 칸트의 미학적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저작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고, 또 미학적 사유의 대상과 경계를 충분히 개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중요성과 현재성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비판서는 출간 당시부터 내용 구성이 특이하여 독자들의 의아함을 불러일으켰다. 저작의 전반부에서는 미학적 논의가 전개되어 있으나, 후반부는 주로 생명체에 관한 목적론적 논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게다가 후반부의 뒷부분에는 근대 철학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였던 ‘세계 전체’에 대한 목적론적 논의와 ‘자연신학’과 ‘윤리신학’ 등 신학적 논의가 상당히 상세하게 개진되어 있다. 실제로 오늘날 거의 대부분 「판단력비판」의 전반부를 후반부에 비해 훨씬 더 중시하고, 훨씬 더 활발하게

16) 이하 칸트 저작의 인용은 세 비판서의 경우 관례대로 약어(KrV, KpV, KU)와 쪽수를 표기하며, 「순수이성 비판」의 경우에는 1판과 2판을 A, B로 구별하여 표기한다. 또 주로 인용되는 「판단력비판」은 1793년의 2판의 쪽수를 따르고 있음을 밝혀 둔다. 한편, 그 외 다른 저작들은 바이에델판 편집에 따라 제목, 권수, 쪽수를 표기한다.(*Werkausgabe*, ed. W. Weischedel, 12 Bde., Frankfurt. a. M.: Suhrkamp, 1957ff.)

17) E. Cassirer, *Kants Leben und Lehre*, Darmstadt: Wiss. Buchges., 1994, p.292.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단력비판」의 특이한 내용 구성은 칸트만의 독특한 시도였을까? 미학적 논의와 목적론적 논의는 그 대상의 성격은 물론, 논의의 인식적, 철학적 위상이 판이하여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칸트 자신도 미학적 논의의 대상은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한 미적 표상' 혹은 '주관적 합목적성'인 반면, 목적론적 논의의 대상은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한 논리적 표상' 내지 '객관적 합목적성'이라고 하면서 두 대상 영역의 차이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가.(KU XLII-LIII, §§61-62)

우리는 「판단력비판」에서 미학과 목적론을 포괄하는 고유한 원리적 능력으로서 '반성적 판단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론적 인식을 위해 감성, 오성, 이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험적·형식적인 구성을 수행하고, 도덕적인 의지의 규정을 위해 실천이성이 '정언명법'이라는 형식적 반성 과정을 통해 선험적으로 기여하는 것처럼, 미적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의 저변에는 '반성적 판단력'의 고유한 선험적 원리인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이 자리잡고 있다. 칸트는 제3비판서, 특히 본 저작의 「서론」과 출간하지 않은 이른바 「제1서론」에서 이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미학과 목적론을 함께 묶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공통된 기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실 「판단력비판」의 반성적 판단력은 칸트가 갑자기 발굴해낸 것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변증론」 다음 부분에서 제3비판서를 예견하는 많은 문제와 논점들을 상세하게 논구한 바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선험적 변증론」의 두 보론인 「순수이성 이념의 규제적 사용에 관하여」와 「인간 이성의 자연적 변증론이 지닌 궁극적 의도에 관하여」, 그리고 「선험적 방법론」의 1장 「순수이성의 규율」과 3장 「순수이성의 건축술」 등에서 이러한 논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과 그 원리

로서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이성 이념의 '경험적이며 규제적인' 사용(KrV A 670 B 698) 내지 '가설적인 이성의 사용'(KrV A 646 B 674-675)¹⁸⁾으로 규정하면서 반성적 판단력과 직결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칸트는 총체성을 열망하는 이성이 이론적 견지에서 '자연의 체계적이며 합목적적인 통일성'이란 이념으로 오성의 자연 탐구를 이끌어가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오성과 달리 이성은 '형식들의 동질성, 세분화, 연속성'의 원리들을(KrV A 651 B 680-681) 이룰때면 '산반성적으로' 자연 전체의 가능한 통일성을 향해 '투사하면서'(KrV A 647 B 675) 자연을 법칙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오성을 '발견술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성 이념의 선형적 의미에 대한 문제, 즉 대상 경험의 가능성을 위한 이성 이념의 존재와 의미를 선형론적으로 연역하는 문제는 이들 텍스트에서 마지막까지 불안정하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아마도 이러한 모호함과 불안정함 때문에 칸트가 제2비판서에서 반성적 판단력과 그 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아무튼 '반성적 판단력'이 이성 이념의 '규제적 사용'을 계승하면서 출현한 선형적 능력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반성적 판단력과 그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을 목적론적 판단과 함께 미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점에 『판단력비판』의 새로운 성취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성적 판단력의 문제, 그리고 미학과 목적론의 연관성은 소위 비판기(1781년 이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시야를 좀 더 거

18) 이에 대해선, G. Schulte, *Immanuel Kant*, Frankfurt a. M.: Campus, 1991, pp.99-106 참조.

19) 이에 대해선 좀더, Sun-Kyu Ha, *Vernunft und Vollkommenheit*, Berlin/New York: Peter Lang, 2005, pp.285-292 참조.

슬러 올라가 비판기 이전 젊은 칸트의 저술들로 넓혀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먼저 칸트의 교수 취임 논문인 『감성계와 예지계의 형식과 원리들』(1770)의 후반부에는 이미 반성적 판단력 내지 이성의 규제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명확한 형태로 개진되어 있다.(§30, V 102-103) 칸트는 여기서 이를 “오성의 제한되지 않은, 확장된 사용”을 위한 “합치의 원리들(principia convenientiae)”이라 부르며, 이에 속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이들을 “주관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전비판기의 대표적인 신학적 논문인 『신존재 증명을 위해 가능한 유일한 근거』(1763)에서는 자연신학적 논증 과정 안에 미적 경험 내지 목적론적 판단이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칸트는 자연신학적 논증의 출발점으로서 자연 현상과 수학적 질서에서 ‘지각할 수 있는 조화로운 통일성들’을 지적하면서 이 통일성들이 “자연의 무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II 657-662)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눈여겨봐야 할 저작은 『보편적 자연사와 우주이론』(1755)이다. 이 저작은 근본적으로 뉴턴의 원자론적-물리학적 세계관과 라이프니츠적 실체 형이상학, 혹은 자연과학적 ‘기계론’과 세계(우주)의 완전성에 대한 ‘목적론’을 매개한다는 사상적 지향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경험이 목적론적이며 자연신학적인 논의 안에 통합되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칸트는 아름다움을 우주의 체계적인 질서의 ‘완전성을 관조’하면서 갖게 되는 만족감으로, 반면 숭고함은 가장 강렬하게 활성화된 상상력이 ‘신적 창조의 무한성’을 떠올리면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묘사하고 있다.(I 228, 333, 334-345) 한마디로 미와 숭고의 미적 경험을 ‘우주론적 완전성’과 ‘신적 무한성’이라는 두 이념으로 소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판단력비판』은 젊은 시절부터 칸트가 품고 있었던 세계

의 완전성과 이성(인식)의 체계적 통일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확신에 바탕을 둔 미와 숭고의 경험을 선형철학적·비판주의적 토대 위에서 다시금 상세하게 논구하고 정당화한 저작으로 봐야 할 것이다.²⁰⁾

그러나 미적 판단과 목적론, 미적 경험과 생명(체)의 연관성은 좀 더 좁은 의미의 미학적 내지 예술철학적 관점에서도 의미심장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이상적인 플롯의 통일성을 유기(체)적 통일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통일성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대상이 지닌 적절한 크기와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²¹⁾ 비극의 통일성에 대한 이러한 함축적인 언급은 물론,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예술작품의 구성, 생명체의 내적 통일성, 관객의 미적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내밀한 연관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세기 영국의 중요한 윤리학자이자 미학자인 샤프츠베리에 있어서도 미적 경험은 인간 삶(생명)의 본원적인 창조성 및 우주 전체의 조화로운 질서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²²⁾ 앞서 보았듯이 칸트에게서 이러한 내밀한 연관성을 체현하고 있는 개념은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이다.(KU XXIX) 그런데 비판기의 칸트가 이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규제적인 ‘주관적 원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원리의 근원이 인간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대상이나 상태를 생각을 통해 미리 선회하는 존

20)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 세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반성 712, 715). 이런 맥락에서 카시러가 『판단력비판』을 해석하면서, 사구의 오랜 신플라톤주의적·행이상학적 조화의 전통과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Kants Leben und Lehre, *ibid.*, pp.294-306.)

21) Aristoteles, 『시학』, 천명희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2, 7-8장(1450b20-1451a35) 참조.

22) 샤프츠베리에 대해선, E. Cassirer, *Philosophie der Aufklärung*, Tübingen, 1974, pp.416-423 볼 것.

제이다. 즉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된 시간성(Zeitlichkeit)의 지평 위에서, 또 이 지평 위에서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어떤 '목적'을 미리 떠올리고, 이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자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Absicht)'가 이루어졌을 때 쾌감을 느끼는 존재자이다. 이에 따라 합목적성의 원리는 오성의 범주처럼 현상계의 객관적인 '대상성' 일반을 구성하는 선험론적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 시간성과 의식적 사유를 근간으로 한 인간적 삶의 구조적 특성에서 도출된 원리인 것이다. 그래서 칸트가 "합목적성의 개념은 범주가 아니다"(EE X 33)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또한 취미판단의 '주관적 형식적' 원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판단력비판」 10절에서, '목적', '합목적성', '쾌감'의 세 개념을 서로 긴밀하게 연관시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KU 32-3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적 경험과 목적론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살아가는 인간적 삶의 기본적인 방식은 시간성과 자기의식의 지평 위에서 시도하는 목적의 실현이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합목적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목적 실현을 위한 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둘러싼 대상과 세계에 대해 다음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신을 둘러싼 대상과 세계가 모든 규정 가능성에서 벗어난 카오스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연관성과 질서'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 자신의 행위가 이 대상과 세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늘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²³⁾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은 세계와 이 세계에

23) 칸트는 이를 서론에서 "자성의 능력을 통한 규정가능성"이라 부른다.(KU LVI)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줄고, 「의미 있는 형식(구조)의 상호주관적 지평」, 「칸트연구」 제 14집, 한국칸트학회, 2004, pp.189-192 볼 것.

대한 자신의 인식이 어떤 의미 있고 통일성 있는 형식과 구조를 보여 줄 것임을 선형적으로 전제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형식적 함목적성’이란 원리가 삶의 행위가능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실존(철학)적 관점에서 함목적성의 의미를 풀어볼 수 있다. 인간적인 삶의 행위란,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의식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의 상태와 모습을 떠올리며, 이 상태와 모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억압하거나 은폐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앞으로의 삶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필연성(과거)과 가능성(미래)’을 현재적인 삶의 행위(과정) 안에서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그러므로써 구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이 상호 연관성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조화로운 통일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함목적성은 삶의 과정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합치되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추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노력이 성공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상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²⁴⁾

이제 칸트는 이러한 함목적성, 즉 그 부분들이 조금도 소외되거나 무의미해지지 않는 조화로운 통일성, 혹은 그가 달리 표현하듯 ‘세계

24) 키에르케고어, *Die Krankheit zum Tode*(1849),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역, 파주 한길사, 2007, pp.83-103.

25) “모든 의도의 달성은 쾌감과 연결되어 있다.”(KU XXXIX; EE V 45) 『판단력비판』 10권에 등장하는 쾌감에 대한 난해한 정의, 즉 “주관을 그 상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주관의 상태에 대한 표상의 원인상에 대한 의식을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쾌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KU 33)는 정의도 그 핵심은 주관이 쾌감을 느낄 때, 자기 자신과 합치되고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적인 통일성을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인간이 자연과 예술작품이 불러일으키는 '표상들' 내지 '이미지들'의 조화로운 짜임관제(Konstellation; Konfiguration)를 공감적으로 느끼며 바라볼 때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체의 고유한 내적 구조와 기능적 통일성을 이해하고 인식하고자 할 때이다. 칸트는 두 종류의 미적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 전자의 '합목적성'을 각각 미의 '목적 없는 합목적성'(KU 33, 61), 그리고 숭고의 '이성을 위한 주관적 합목적성'(KU 101)이라 부르고 있다. 반면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인도하는 후자의 합목적성을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면서 결과인 자기 목적'(KU 286-292)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학과 목적론이 『판단력 비판』 속에 함께 묶여있는 심층적인 원인은 인간적 삶이 전개되는 근본적인 구조와 이 삶을 추동하는 '조화를 향한 욕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근본적으로 세계와 인식의 '체계적 통일성'을 전체하면서 세계 안에서 정향하는(orientieren) 존재자라는 점, 동시에 삶의 과정 전체의 조화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존재자라는 점이 미학과 목적론을 함께 묶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또한 미적 경험과 예술작품의 수용 과정에서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내적기능적 통일성, 이른바 '유기적 통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단순한 유비(analogy)나 투사(projection)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적 삶의 근본적인 '실천적 구조와 욕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거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판단력비판』의 사상사적 위상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을 반성적 판단력의 고유한 선험적인 원리로 정당화하는 것, 이 과정의 '출현과 해결 방식'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상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적 '퀴시스(phýsis)'에 대한 사유에서부터 근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바움

가르텐에 이르는 서구의 오랜 전통은 거의 예외 없이 우주(세계)의 완전성과 조화로움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아름답고 완전한 신적 로고스와 질서가 관철되고 있거나, 아니면 가장 완벽한 존재자가 창조한 산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능동적인 사유능력이 이러한 완전성과 조화로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칸트도 전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전통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주(세계)의 완전성이 「순수이성비판」을 거쳐 「판단력비판」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규제적인 원리로 주관화됨으로써 이 오랜 전통이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위기는 완전한 종말이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인간적 삶의 조화로운 정향을 위한 '반성 원리'로서 이 전통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의 방식이 칸트 사상의 고유한 역사적 징표이다. 그것은 근대 주체가 '세계내존재'로서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세계 안에서 정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달리 말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소우주와 대우주'의 조화와 수학적 신비주의에서 벗어난 근대 주체가 어떻게 자신과 세계 사이의 의미 있는 연관의 가능성을 확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근대 주체가 처한 본질적인 균열(Entzweiung)의 상황을 알려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이 균열의 포괄적인 제목은 물론, 주체와 세계, 경험과 대상 사이의 균열이겠지만, 우리는 칸트 철학 내부에서도 이 균열의 흔적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형식과 질료, 수동성(수용성)과 능동성(자발성), 감성과 오성, 감각의 '혼돈적 다양'과 상상력의 '형상적 종합', 범주의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 오성과 이성, 자연의 필연성과 자유의 필연성,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무엇보다도 현상계와 예지계 등 칸트의 비판철학은 해소되지 않은 많은 균열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칸트는 형식적 합목적성의 원리를 통해 주체 내부의 균열과 주체와 세계 사이의 균열

을 통합하고 치유하고자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만, 야코비 등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자들, Fr. 슐레겔, 슐라이어마허, 노발리스를 필두로 한 초기 낭만주의 사상가들, 그리고 칸트 이후 실러,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관념론 철학의 전개 등도 모두 이 균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상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그 해결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근대적 주체의 사상사를 배경으로 『판단력비판』의 목적론적 논의가 가진 의미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 논의를 생물학의 학적 토대에 대한 '인식비판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자연과 세계를 '합목적성' 내지 '자기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근대적 주체의 가능성을 정당화한 기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제3비판서의 목적론은 좁은 의미의 생물학적 '학문이론(Wissenschaftstheorie)'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체는 물론 자연과 세계 전체를 '유기적인 통일성'의 관점에서, 또 '자족적이며 자가생성적인 체계'로서 이해하고 인식하려는 근대 주체의 본원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칸트의 목적론적 논의는 낭만주의적 자연철학과 적어도 그 사유 구조에 있어 친화성을 갖고 있으며, 19세기 생물학 및 진화론의 발전을 일정 정도 예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낭만주의적 자연철학은 허만, 헤르더, 셸링, 바더 등에서 보듯, 칸트가 긍정적으로 보았던 물리학적기계론적 자연과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낭만주의적 자연철학이 사변적 총체성 내지 경험적 구체성 속에서 체험하고 확증하고자 한 '자연과 정신의 종합과 통일'은 칸트가 말하는 '유기적 통일성'과 적어도 사유 방식과 사상적 지향점의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또한 칸트의 목적론적 논의가

26) 낭만주의적 생물학과 자연철학에 대해서, P. Kluckhohn, *Das Ideengut der deutschen Romantik*, Tübingen: Niemeyer, 1961, pp.12-59 볼 것.

19세기 실증주의적 생물학과 진화론의 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무리한 주장일 것이다. 칸트는 근본적으로 데카르트적인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이래 생물학과 진화론이 개별 유기체의 자족적인 기능적 통일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자연체계의 이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칸트가 '규제적인 고찰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목적론적 논의와 상통한다고 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칸트의 목적론적 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체계이론적' 접근과²⁷⁾ '생태학적' 접근과²⁸⁾ 연관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또한 체계와 환경을 구분하면서 체계의 '자기 재생산' 및 '자기 관찰' 과정에 주목하고, 동시에 체계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 양상을 포괄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체계적 통일성'의 사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칸트의 목적론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연미학'²⁹⁾, '환경미학', '환경미술'³⁰⁾ 등 새로운 미학 분야 내지 미술 분야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요약하자면, 미학과 목적론의 결합은 제3비판서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론적 종합이 아니라, 칸트 사유가 초기부터 갖고 있었던 미학과 우

27) 대표적으로 마투라나(U. Maturana)의 생물학적 체계이론과 루만(N. Luhmann)의 사회학적 체계이론을 들 수 있다(U. Maturana, *Biologie der Realität*, Frankfurt. a. M.: Suhrkamp, 2000; N. Luhmann, *Soziale Systeme*, Frankfurt. a. M.: Suhrkamp, 1987)

28) 김양현,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관에 나타난 인간중심주의」, 『철학』 제55집, 한국철학회, 1999, pp.97-120; 박구용, 「자기보존과 자연보존」, 『철학』 제61집, 한국철학회, 2003, pp.239-259.

29) 예를 들어 다음 저작들을 들 수 있다. G. Böhme, *Für eine ökologische Naturästhetik*, Frankfurt. a. M.: Suhrkamp, 1989; H. Böhme, *Natur und Subjekt*, Frankfurt. a. M.: Suhrkamp, 1988.

30) 환경미학과 환경미술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선, 임성훈, 「환경미학」, 『미학대계』 제3권, 서울대출판부, 2007, pp.173-188 참조.

주론 내지 미학과 자연신학의 통합적 사유가 비판철학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결합은 근대적 주체성의 근본적인 균열의 상황과 이 균열을 넘어서고자 하는 '실천적이며 실존적인' 지향을 보여주는, 칸트 사상의 의미심장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2 '무관심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 지평의 변화

무관심성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칸트 미학의 논점들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토론되어 온 논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빈번히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확실히 무관심성 개념은 칸트의 미학적 논변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먼저 미적 만족감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이를 다른 종류의 만족감들과 — 감각적 쾌적감과 도덕적 선에 대한 만족감 — 구별시켜주는 '종적 차별성'이 되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숭고함의 만족감을 느끼는 주체는 쾌적감을 느낄 때와 달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있다. 이 주체는 또한 어떠한 도덕적 내지 정치적인 관점이나(KU 5-6) 개인적이며 "사적인 조건들"(KU 17)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당과 적인"(KU 6) 판정가가 될 것이며, 미적 판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관적 보편성에 대한 요구"(KU 18)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관심성은 미적 판단의 독자성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적 판단의 주체가 사적으로 고립된 전망에서 빠져나와 공적이며 보편적인 '공감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무관심성 개념은 칸트가 미적 판단과 미적 주체의 자율성과 보편성을 논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논점이었다. 그렇다면 무관심성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제의식 하에서 논의되어 왔을까? 먼저 무관심성 개념을 긍정적으로 계승한 두 사상가들로 쇼펜하우어와 벌로우(E. Bullough)를 살펴보자.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독특한 '의지의 형이상학' 안에서 미적 경험과 예술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³¹⁾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현상계와 물 자체의 구분을 받아들이면서 객관적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주관적 의지로서의 세계를 칸트만큼이나 명확히 구별하였는데, 이때 그는 후자인 의지로서의 세계를 불교사상과 유사하게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의지는 결핍과 고통, 그리고 이를 상쇄하려는 욕구에서 기인하는데, 결핍과 고통은 현세에서 결코 완전히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WWV II, §38) 하지만 인간은 미적·예술적 경험을 통해, 즉 순간적이거나 "이념에 대한 무관심적인 관조와 직관적인 인식"에 도달함으로써 생의 근본적인 비극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무관심성은 일견, 미적 주체가 대상에 대해 무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상호 주관적인 지평으로 상승한다고 말한 칸트의 입장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무관심성은 이미 '직관적 인식'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칸트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무관심적 상태에 있는 미적 주체는 "의지와 고통이 없는, 비시간적인 인식의 주체"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의식과 집착에서 벗어난 망아의 상태에서 미적 대상의 구체적인 이미지에 몰입하고 있는 주체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의지로서의 세계, 모두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플라톤적 의미의 이데아를 관조하고 있는 주체, 즉 경험적 세계의 형이상학적 근거인 '영원하고 참된 형상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있는 주체'인 것이다.(WWV I §34, §38)

31) A. Schopenhauer,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Bd. I/II, Stuttgart: Reclam, 1987.

한편, 20세기 초반 영국의 심리학자였던 벌로우의 무관심성의 계기를 '심리적 거리(psychical distance)'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이 심리적 거리가 미적 경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상을 미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상하는 주체의 심리 상태가 '순수한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모든 다른 관심들, 즉 '실천적 자아의 갈망'이나 '개인적인 욕구와 목적'으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³²⁾ 이는 분명 상당 부분 샤프츠베리, 칸트, 쇼펜하우어 등의 무관심성 개념을 이어받은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 왜냐하면 벌로우에 이르러 무관심성 개념은 주체의 심리적 상태로, 즉 개별 주체가 특정 대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심리적 태도의 차원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무관심성 개념이 보다 포괄적이며 심층적인 차원과 맺고 있던 연관성, 즉 '우주 전체의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진리의 직관'(샤프츠베리), '주관적 보편성의 요구'(칸트), '이데아적 형상의 직관적 인식'(쇼펜하우어) 등과 맺고 있던 연관성에서 떨어져 나와 단지 주체의 심리적 태도로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벌로우의 이론은 이후, 현대 영미 미학의 주요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가 된 '미적 태도론(theory of aesthetic attitude)'의 시발점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관심성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 어떤 사상사적 내지 예술철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낭만주의에서 시작되고 유티주의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던 예술적 '절대주의'의 퇴거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19세기 중반부터 서구 자본주의 세계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겪으면서 '미적 예술'의 절대

32) E. Bullough, "Psychical Distance as a Factor in Art and as an Aesthetic Principle", in : *Aesthetic - A Critical Anthology*, ed., G. Dickey, R. Sclafani & R. Robli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pp.321-324.

적 가치와 정신성을 내세우는 “부정적 신학”이³³⁾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급격한 변동을 가져온 핵심적 요인으로는 사진의 탄생, 신문, 잡지, 영화 등 대중매체의 보급, 대도시와 대중 사회의 가속화, 다양한 자연과학적·실증적 학문들의 발전, 그리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대중운동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상품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도전은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전면적인 위기에 몰아넣었다. 벤야인이 언급한 대로 “창조성, 천재, 영원한 가치, 비밀”과 같은 미적 예술작품의 운과를 형성했던 요소들이 송두리째 그 현실적 기반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³⁴⁾ 바로 이 상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예술사적 증거가 다다에서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20세기 초반의 ‘역사적 아방가르드’였다.³⁵⁾ 결국 현대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의 본질과 사회문화적, 인간학적 의미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성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관심성에 관한 미학적 논의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인다. 첫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무관심성 개념을 미적 태도론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킨 논의 방향이 있다. 스톨니츠, 올드리치(V. Aldrich), 비바스(E. Vivas) 등의 미학자들이 이 논의 방향에 속하는데, 예컨대 스톨니츠는 『미학과 비평철학』에서 미적 태도를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인지의 대상을 그 대상 자체를 위해서, 무관심적이며 공감적으로 대상을 주목하고 관조하는 일”이라³⁶⁾ 정의하고 있다. 스톨니츠는 ‘공감적 주목’과 ‘대상 자체를 위해

33) W. Benjamin,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in: 『빌터 벤야민 선집』 제2권, 최성만 역, 서울 길, 2007, p.52.

34) W. Benjamin, *ibid.*, pp.42-43.

35) P. Bürger, *Theorie der Avantgarde*, 『전위예술의 이해』, 최성만 역, 심성당, 1984.

사'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미적 관조의 상태가 결코 모든 관심을 배제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영미 분석미학은 이렇게 미적 태도론으로 수용된 '무관심적 주목'을 이후 지속적으로 토론했는데, 특히 그 개념적 불명료성이나 논증적 부정합성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하였다.³⁶⁾ 분명한 것은 미적 태도론이 다른 인간적 경험들과 질적으로 다른 미적 경험의 고유성을 논증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무관심성 개념을 미적 태도론으로 분화시키면서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현대 미학적 논의에서 미적·예술적 경험의 본질적 조건을 논구하는 일이 여전히 열려 있는 연구 주제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의 방향은 무관심성이 기대고 있는 사상적 토대와 역사적 지평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방향이다. 이 방향에 속한 루카치, 아도르노, 크라카우어, 벤야민 등은 모두 역사적 유물론의 세례를 받은 사상가들이었으며, 칸트적 무관심성의 의미론적 협소함과 문역사성을 문제시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무관심성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루카치는 칸트적 무관심성의 근본적인 한계가 칸트 철학의 '관념론적' 방법, 즉 주체와 객체, 경험과 대상 사이를 서로 고립시켜 고찰하는 철학적 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칸트가 '미적인 차원'과 사회적, 역사적 삶 사이의 본원적인 연관성을 애초부터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무관심성을 "이해관계를 완전히 초월한 상태"

36) J. Stolnitz,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Criticism - A Critical Introduction*(1966), 『미학과 비평철학』, 오병남 역, 서울: 이문과실권, p.38.

37) 특히 디키의 분석과 비판을 보라. G. Dickie, *Art and the Aesthetic*, 『현대미학』, 오병남 역, 1982, pp.85-141. 다음 논제도 참조할 것. J. Kupperman, "Art and Aesthetic Experience", in: *BJA* 15, 1975, p.35; M. Otto, *Ästhetische Wertschätzung, Bausteine zu einer Theorie des Ästhetischen*, Berlin: Akademie, 1993, pp.165-166.

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루카치에 따르면 주체의 미작-예술적 경험은 결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 주체는 단지 이 맥락 안에서 감각적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잠정적으로 유보할 뿐이다. 주체가 미작-예술적 경험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이 경험의 전개 과정과 주체에 대한 효과도 인격적이며 유기적인 삶 전체와 연결된 사회적, 역사적 관심의 방향과 그 변화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³⁸⁾

다음으로 아도르노는 칸트가 무관심성을 통한 미적 영역의 구성을 “선형적으로 정지시키고 단순한 논리로 예술적인 것의 본질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칸트적 무관심성이 그 내용에 있어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일반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미적 현상들’이 지닌 다양성과 다의성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꼬집는다. 하지만 아도르노는 칸트적 무관심성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구제하고자 한다. 무관심성 개념은 미적 경험에 있어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일정한 거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예술이 직접적 욕망이나 주어진 현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 즉 자율적 예술이 사회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비동일성의 사유’를 작동시키기 위해 자신을 이 현실로부터 분리할 수밖에 없음을 부각시킨 논점인 것이다.³⁹⁾

한편, 영화이론가이자 문화철학자였던 크라카우어는 무관심성이 자본주의의 모더니티 현실과 대중문화 속에서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가에 주목한다. 특히 그는 ‘실존적 개별자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대도시 대중사회 속에 던져져 있는 ‘부유하는 주체’에게 무관심성의 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 성찰한다. 대중사회의 주

38) G. Lukaács, *Ästhetik*, 『미학』 제3권, 임흥배 역, 서울: 미술문화, 2002, pp.161-167.

39) Th. Adorno, *Ästhetische Theorie*, ed. G. Adorno & R. Tiedemann, Frankfurt a. M.: Suhrkamp, 1989, pp.22-26.

체는 '우연이 숙명의 자리를 대체한', 수많은 순간적인 인상들과 지각들이 끊임없이 명멸하고 있는 대도시 안에 놓여 있다. 대중사회의 주체는 총체적인 파악을 허락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추상화되고 파편화된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급한 문제나 격렬한 감정이 이 주체를 압박하지 않을 때, 예컨대 한가로이 대도시 거리를 걸을 때나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이 주체는 추상화되고 파편화된 세계의 모습을 무관심적으로 관조하는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미적 관조'는 아무런 내용과 지향점을 갖지 못한 만족감의 상태이다.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산출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막연하고 공허한 만족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는 이러한 관조의 감상성(Sentimentalität)과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럴 때 주체는 신문, 잡지, 탐정소설, 라디오, 영화, 스포츠, 레쥘쇼 등과 같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형식들을 찾게 된다. 크라카우어는 대도시 대중사회의 주체가 이러한 대중문화적인 '표면 현상들(Oberflächenerscheinungen)'에서 '미적 유희'를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체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대도시 주체가 이러한 미적 유희를 향유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미적 예술을 감상하는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것은 지성과 정신을 통한 이해라기보다는 몸의 감각적 느낌과 생리적 공명 효과를 통해 표면 현상들과 교류하고 뒤섞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벤야민이 현대의 미적 경험을 사유하는 방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비록 벤야민이 무관심성을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지만, 그

40) S. Kracauer, *Das Ornament der Masse*, ed. K. Witte, Frankfurt a. M.: Suhrkamp, 1977, pp.157-170. 또한 이 책에 실린 에세이 「기다리는 자도 보라(pp.106-119)」

41) S. Kracauer, *Theorie des Films*, Frankfurt a. M.: Suhrkamp, 1973, pp.215-226.

가 '아우라의 위축'과 '미적 가상의 몰락'이라는 말로 전통적 예술 개념 일반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부터⁴²⁾ 그가 크라카우어와 마찬가지로 무관심성을 포괄적인 역사적·기술·문명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읽어낼 수 있다. 아울러 그가 '집단신체의 변화', '정신 분산'과 '촉각적 적응'이 지배하는 지각 환경, 미래의 지각 방식을 선택하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 등을 적시하는 것은, 그가 미적 경험의 역사적 조건과 의미가 혁명적으로 변화했음을 직시하고 있으며, 또 그가 염두에 둔 주체가 근본적으로 대도시 대중사회의 주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무관심성과 관련하여 크라카우어와 미묘하게 다른 점도 있다. 벤야인은 크라카우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무관심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대중매체의 사회정치적 기능 속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이것은 특히 벤야인이 얘기하는 영화가 가져오는 '전통의 창상', 영화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시험적' 수용 태도, '제2기술'이 내포한 유희적 전유의 특성, 그리고 대중의 위험한 긴장을 해소하는 '정신적 예방접종'의 기능 등의 논점들이 함축적이지만 상당히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벤야인은 새로운 대중매체에 내재된 역사철학적 의미와 혁명적 활용 가능성을 일깨우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중이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 특성 및 작동방식을 '무관심적으로 유희하면서' 전유하는 일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크라카우어와 벤야인은 근대 자율적 주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대중사회의 주체가 대신 들어선 모더니티 현실을 배경으로, 근대적 무관심성의 종착점과 그 새로운 재생 가능성을 '인간학적 유물론'의⁴³⁾ 관점에서 논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 W. Benjamin,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ibid.*, 특히 pp.80-96.

43) 최성민, 「발터 벤야민의 인간학적 유물론」, 『위히너와 현대문학』 제30집, 한국위히너학회, 2008, pp.225-252.

무관심성에 대한 세 번째 논의 방향은 무관심성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 비판하고자 한다. 물론 이 방향도 무관심성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토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향은 두 번째 방향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무관심성 개념을 하나의 '사회역사적 이데올로기'로서 폭로하고 해체시키고자 한다. 이 방향에 속한 가장 두드러진 이론적 성과로는 페미니즘적 접근과⁴⁴⁾ 사회학적 접근을 들 수 있는데, 사회학적 접근의 한 예로 부르디외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자. 부르디외는 저서 『구별짓기』에서⁴⁵⁾ 미적인 영역을 자율적인 것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구체적 현상으로서 고찰한다. 이미 부제인 '미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목표는 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경험과 예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결코 어떤 중립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르디외는 다양한 계층들의 미적 경험 방식을 세밀하게 관찰,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풍부한 통계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흔히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심미주의적 입장'과 '차별화의 감각'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적 불평등과 이데올로기적 전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부르디외는 '초연하고 사심 없는 태도'로 미적 대상에 주목하는 심미주의와 형식적 특질과 기법적 세련됨을 높이 평가하는 미학적 입장이 전혀 중립적·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화자본, 학력자본, 사회관계자본 등을 지배적으로 점유하고 있

44) 근대 미학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에 대해선, C. Korsmeyer, *Gender and Aesthetics*(2004), 『페미니즘 미학 입문』, 신혜경 역, 경성대출판부, 2009, pp.33-114 볼 것. 특히 칸트적 무관심성과 취미 개념과 관련해선 pp.89-102 참조.

45) P. Bourdieu, *La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구별짓기』, 최종철 역, 계권, 특히 pp.87-127 볼 것.

는 '특권적 제공'의 선호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논구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논의 방향은 칸트적 무관심성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그 철학적 중요성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방향이다. 이 때 재해석의 방식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대한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속한 몇몇 성과들로 오토의 분석철학적 접근, 슈미츠의 신체현상학적 접근, 랑시에르의 정치철학적 접근 등을 꼽을 수 있다. 오토는 칸트 미학의 주요 논점들을 분석철학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미적 경험과 예술철학의 일반적인 이론적 토대로서 되살리고자 한다. 그는 칸트의 무관심성 개념이 미적 경험의 모든 국면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적 만족감의 고유한 특성들을 명확히 논증한 이론적 성과로 평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오토는 칸트의 무관심성을 미적 만족감이 감성적, 실천적(실용적), 도덕적인 논거와 무관하다는 점, 대상의 실제적인 존재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상의 고유한 특질에 대한 '자유로운' 만족감이라는 점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논점으로 재평가하고 있다.⁴⁶⁾

반면 슈미츠는 신체현상학적 관점에서 칸트의 무관심성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칸트가 무관심성이란 개념으로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있는 것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독특한 '거리두기(Distanzierung)'이다.⁴⁷⁾ 어떤 대상이나 사태의 '존재'는 주체의 '정동적 놀람(affektives Betroffensein)'의 느낌을 통해, 즉 주체의 신체성(Leiblichkeit)을 전체적으로 사로잡는 놀람의 느낌을 통해 드러나는 사건이다. 그런데 주체

46) M. Otto, *Ästhetische Wertschätzung*, op. cit., pp.147-195, 특히 pp.172-191 참조.

47) 중요한 것은 이 거리두기 개념이 불모우적인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 인간학의 개념으로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방식의 한 형태, 즉 인간에게 고유한 하나의 존재양상(Sein)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선 E. Rothacker,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Bonn : Bouvier, 1966, pp.123-132 볼 것.

가 미적인 방식으로 대상과 사태에 다가갈 때 주체는 저절로 '존재함'의 지평 및 이 지평의 정동적 압박으로부터 자신과 신체성의 느낌을 일정 정도 분리시키게 된다. 즉 주체는 이제 대상과 사태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한"(KU 6, 14) 상태에서 이들에 주목하고, 이들과 공감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슈미츠는 주체가 존재 자체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체가 '전개된 현재(entfaltete Gegenwart)'의 상태로 이행하고, 그럼으로써 '개체적 해방'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무관심적 거리가 유희적 동일시, 시적 언어, 시적 은유 등 미적 경험과 미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인간학적 기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⁴⁸⁾

다른 한편, 랑시에르는 정치성을 근본적으로 '감성의 분할 과정'으로 보면서 미학과 정치의 동근성(同根性)을 성찰하는 정치철학자로서 근대의 미학적 논의를 재독해한다.⁴⁹⁾ 랑시에르는 특히, 칸트와 실러의 미학적 논의를 통해 성립된 '미학적 예술체제'가 전통적인 '재현적 예술체제'를 붕괴시켰음을 강조한다. 이들의 '미학적 예술체제가 그 이전까지 예술의 제작방식(poiesis)과 존재방식(aisthesis)을 규율했던 규범(미학)적이며 미메시스적인 '재현 방식'을 해체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랑시에르의 이러한 흥미로운 재평가 속에는 무관심성 내지 미적 가상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무관심적 관조가 "오성의 법

48) H. Schmitz, *Was wollte Kant?*, Bonn : Bouvier, 1989, pp.357-359; *Der unerschöpfliche Gegenstand*, Bonn : Bouvier, 1990, pp.174-176, 458-465. 슈미츠의 이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줄고, 「미학적 경험의 현상학적 재정의 : 헤르만 슈미츠의 신체현상학과 미학이론에 대하여」, 『미학예술학연구』 제23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6, pp.275-315 참조.

49) 랑시에르의 이론에 대해선 박기순의 탁월한 논문을 보라(박기순, 「랑시에르에서 미학과 정치」, 『미학』 제61집, 한국미학회, 2010, pp.59-93.) 랑시에르의 홍익대학교 강연문 「미학적 전복(La subversion esthétique)」(2008년 12월 3일)도 그의 정치철학적 미학의 요새를 담고 있다.

에도 복종하지 않고 감각의 법에도 복종하지 않은⁵⁰⁾ 자유로운 상태, 그럼으로써 이전의 철학적 전통을 지배해 왔던 “형상과 물질, 지성과 감성의 대립”을 중지시키는 중요한 정치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랑시에르는 칸트와 실러의 ‘미학적 예술체제가 도래할 인간의 ‘감각 구조’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인간학적 기획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 기획이 실현된 역사적 실례로 초기 낭만주의의 ‘감성적 혁명’과 아도르노의 ‘사회적 저항의 형식’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한다.⁵¹⁾

지금까지 상기에 본 네 가지 논의 방향을 볼 때, 개별 사상가들 각자가 서 있는 이론적 입장과 사유의 방법에 따라 무관심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확연히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하지만 이들 모두 무관심성을 미적 경험의 핵심적인 계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무관심성의 문제를 진지한 토론 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미작·예술적 경험의 고유한 성격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무관심성의 문제를 우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게다가 칸트가 ‘순수하게 무관심적인’ 미적 판단만을 분석하지 않았음을 잊어선 안 된다. 『판단력비판』의 16절과 17절, 41절-42절, 그리고 55절에서 60절 사이의 논의가 보여주듯, 칸트는 특정한 개념을 전개한 ‘고정된(fixiert)’ 미적 판단(KU 51), ‘경험적 관심’ 내지 ‘지성적 관심’과 결합한 미적 판단의 가능성도 적극 인정하였으며(KU §§41-42), 또 그 인간학적, 사회문화적 근거와 중요성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던 것이다. 요컨대 칸트의 무관심성은 현대 미학적 맥락에서도 여전히 예술철학적 성찰을 자극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논점이라 할 수 있다.

50) J. Rancière, *Malaise dans l'esthétique*, 『미학인의 불편함』, 주향일 역, 교양시: 인간사랑, 2009, p.156

51) 박기순, 앞의 글, p.82-86.

2.3 미와 숭고의 구별과 그 예술철학적 현재성

칸트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두 미적 범주를 명확히 구별하면서 자신의 미학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구별 또한 무관심성과 마찬가지로 칸트의 독창적인 성과라기보다는 근대의 사상적 성취를 성실히 수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 주지하듯이 버크가 두 미적 범주의 특징과 구체적 양상을 심리학적·경험적으로 분석한 역저 『숭고 이념과 미 이념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 탐구』(1757)를 집필하였는데, 이 내용이 줄쥬(J. G. Sulzer), 멘델스존, 칸트 등 근대 미학의 주요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⁵²⁾ 비록 실러가 칸트와 달리 '우아함(Anmut)'을 미와 구별하면서 또 하나의 독립된 미적 범주로 내세우긴 했지만, 실러의 미학적 성찰도 근본적으로는 미와 숭고를 두 축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칸트는 미와 숭고를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우선 칸트는 경험적·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미와 숭고의 감정적 상태의 차이를 지적한다. 그는 미의 감정 상태를 '고요한 관조의 상태'라 부르며, 이를 숭고의 감정이 지닌 근본적인 '운동 상태'에 대비시키고 있다.(KU 80, 98) 특히 숭고한 감정의 동적 상태를 일종의 '충격'이며 '끌어당김과 밀쳐냄이 빠르게 교대하는 것'에 비유하여, 숭고한 감정이 대단히 극적이며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 내적으로도 서로 대립된 경향성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KU 98, 110) 나아가 칸트는 미의 만족감이 조화로운 쾌감의 상태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인데

52) 버크 저서의 번역본은 두 종류가 출간되어 있으며, 두 역자 모두 충실한 해제를 덧붙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김동훈,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고양시 : 미티, 2006; 김혜련,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파주 : 한길사, 2010)

반해, 숭고의 만족감은 본질적으로 '생명력이 저지되는'(KU 75) 불쾌함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는 중층적인 상태, 달리 말해 "오직 불쾌감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한 쾌감"의 상태임을 적시하고 있다.(KU 100-101) 아울러 미적 만족감을 '경쾌하게 활력'을(KU 31) 느끼는 상태 혹은 '살을 촉진하는 감정'(KU 75)으로 서술하는 데 비해, 숭고의 만족감과 관련하여 '존중감'(Achtung)을(KU 96) 얘기하거나, 혹은 각별히 '정신적 기분(Geistesstimmung)'(KU 85) 내지 '정신적 감정'(KU XLVIII)이라 칭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적·현상학적인 대비보다 철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칸트가 마음의 능동적 능력들과 이들의 작용 양상을 통해 미와 숭고를 차별화한다는 점이다. 칸트는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판단의 바탕에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 상상력과 오성인 반면, 숭고의 경우에는 상상력과 이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두 능력들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도 다르다. 취미판단에 있어서 상상력과 오성은 '자유롭게 상호 작용(유희)하며 서로 합치되는' 상태에 있다.(KU 28-29, 144) 이에 반해 숭고함에 대한 판단에서 상상력과 이성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Widerstreit)'을(KU 99) 야기하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칸트는 심지어 숭고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 '강제력(Gewalt)'에 대해 언급한다. 수학적 숭고를 느끼게 될 때, 이성이 상상력에게 무한한 크기를 하나의 직관으로 총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상상력이 내적 감관인 시간성에 '강제력'을(KU 100)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능력들의 종류와 작용 방식의 차이에 미적 '대상성'의 차이가 상응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즉 능력들의 차이에 대한 논의의 배후에 아름다운 대상과 숭고한 대상이 지닌 존재 성격 내지 특성의 차이가 놓여 있는 것이다. 칸트는 이 차이를 「판단력비판」 23절과 24절에서 한정성/무한정성(Unbegrenztheit), 오

성개념/이성개념, 유희/진지함(Ernst), 형식/몰형식(Formlosigkeit) 등의 대립 개념들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KU 74-78, 83, 132) 특히 숭고한 자연의 모습과 관련하여 “자연은 오히려 그것의 혼돈에서 또는 그것의 가장 거칠고, 가장 불규칙적인 무질서와 초토화시키는 것에서, 단지 거대함과 위력만을 보여주지만 한다면 숭고한 것의 이념들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다.”(KU 78)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우리는 ‘혼돈’, ‘무질서’, ‘초토화’ 등의 표현과 앞선 대비 개념들로부터 미와 숭고의 대상성의 차이가 근본적으로는 두 범주의 근거가 된 ‘이념들’의 차이에 있으며, 이는 칸트의 전비판기 사상에서 연유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앞서 보았듯이, 칸트는 ‘보편적 자연사와 우주이론’에서 미를 우주(세계)의 ‘체계적이며 완전한 질서’를 바라보는 경험으로, 숭고를 ‘신적 창조의 무한성’을 느끼는 경험으로 서술했는데, 이것이 『판단력비판』에서 미와 숭고를 차별화하는 사상적 기원이 된 것이다. 물론 두 저작 사이에는 35년이란 기간이 놓여 있으며, 이 간격 못지않은 이론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비판기의 칸트가 ‘체계적이며 완전한 질서’와 ‘신적 무한성’, 이 두 이념의 근원과 그 사상적 위상을 규정하는 방식은 전비판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미와 숭고의 범주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상성과 이념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관점은 비판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칸트가 이렇게 능동적 능력들의 상이한 역할을 통해 미와 숭고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선형철학의 중심 과제들⁵³⁾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즉 미적 판단이 요구하는 ‘주관적 보편성’을 좀 더 상세히 해명할 수 있는 선

53) 칸트는 『판단력비판』 8절에서 “취미판단에서 확인되는, 미적 판단의 보편성의 이러한 특수한 규정은 주목할 만한 점인데 [...] 이것은 그 보편성의 근원을 발견해내기 위해 선형철학자들의 적지 않은 노력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KU 21)

험적·주관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인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은 미적 판단뿐만 아니라 목적론적 판단에도 공통된 포괄적인 규제적 원리이므로, 취미판단과 숭고에 대한 판단 각각에 고유한 주관적 반성 과정을 명확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미와 숭고, 특히 숭고에 대한 현대 사상가들의 논의를 살펴보자. 철학적 입장과 지향점에 따라 현대 사상가들이 숭고를 주목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칸트의 논의를 숭고에 대한 자신들의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고, 또 칸트 논의에 내재된 이러한 이론적 어려움들을 생산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많은 현대 사상가들 가운데서 아도르노, 료타르, 낭시에 국한해서 그 핵심적 논점만을 짚어보겠다. 먼저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을 폭로한 사상가답게 칸트의 숭고 또한 현대 주체와 사회의 부정성을 배경으로 고찰한다. 특히 그는 헤겔과 달리 숭고한 자연에 대한 칸트적 논의를 생산적으로 되살리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예술을 통해 매개된 숭고한 자연미의 경험 안에는 주체가 자신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지시키는 계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숭고한 자연미에 직면할 때, 현대적 주체는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도구적 이상’의 근본적 한계를 경험하고, 그 억압적 국면과 ‘세계의 고통’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다.⁵⁴⁾ 그런데 여기서 칸트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숭고의 경험은 아도르노에게 직접적인 자연의 경험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주체가 자신 안에서 ‘자연을 넘

54) 숭고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를 모아놓은 대표적인 저작은 다음과 같다. C. Pries(ed.), *Das Erhabene. Zwischen Grenzerfahrung und Größenwahn*, Weinheim: Wiley-VCH, 1989; J.-F. Courtine, M. Deguy, etc., *Du Sublime*(1988), 『숭고에 대하여』, 김예명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55) Th. Adorno, *Ästhetische Theorie*, op. cit., pp.100-101, 143, 172-173 참조

어선 초감성적 능력'을 확인하는 경험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주체가 자신을 총체적인 의미에서 '자연적인 존재'로서 느끼는 경험⁵⁶⁾, 그럼으로써 자신이 암묵적으로 억압하고 배제한 '동일화되지 않은 자연'의 본질적인 무규정성과 무한성'을 상기하는 경험인 것이다. 이로써 아도르노는 헤겔, 키에르케고어, 니체, 베버, 프로이트의 사상적 성취를 수용하면서 칸트적 숭고를 역사적 주체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의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료타르는 칸트적 숭고를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재독해하고 또 광범위한 토론을 촉발시킨 사상가이다. 그의 재독해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논고 「숭고와 야방가르드」⁵⁷⁾가 보여주듯이, 그는 비넷 뉴먼과 같은 진지한 현대 야방가르드 미술가의 작업에 고유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료타르는 "야방가르드주의는 칸트적 숭고의 미학에 배태되어 있었다"⁵⁸⁾ 선언한다. 이러한 시도에서 료타르가 하이데거의 '존재 사건(Ereignis)'의 철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의사통기누스, 부알로, 베크 등 칸트 이전 숭고 미학의 전통도 충실히 검토하고 있으며, 중세의 안셀름의자들의 숭고한 묵상과 성 빅토르 학과의 '수용미학적 관점', 나아가 암묵적이지만 키에르케고어의 '불안'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이론적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⁵⁹⁾ 료타르가 칸트적 숭고를 야방가르드의 미학으로 재해석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세 가지 지점이 있다. 첫째로 료타르는 상상력과 이성 사이의 대립적 상호 작

56) Th. Adorno, *ibid.*, p.410-411.

57) J.-F. Lyotard, 「숭고와 야방가르드」, in: 『지식인의 종언』, 이원복 편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9, pp.154-189. 또한 료타르의 다른 논문 「숭고와 관심」도 보라(in: *De Sublime*(1988), 『숭고에 대하여』, op. cit., pp.197-236.)

58) J.-F. Lyotard, 「숭고와 야방가르드」, *ibid.*, p.171.

59) J.-F. Lyotard, 「숭고와 야방가르드」, *ibid.*, pp.160-162, 164-170.

용을 명확하게 '능력들 간의 분쟁'으로⁶⁰⁾ 규정한다. 이것은 칸트가 두 능력 사이의 갈등을 분석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주관적 합목적성'에 도달한다고 말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둘째로 료타르는 칸트와 달리 상상력이 '현시할 수 없는 것'을 실천적 의미의 '이성 이념'에 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 현시할 수 없는 것을 하이데거의 '사건'을 원용하면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사태(quod)" 자체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사유가 예견할 수도,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는 '새로운 사건의 급작스러운 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로 료타르는 이렇게 현시할 수 없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지닌 '정치적' 의미를 적극 내세운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피하지 않고 이 사회의 경제적 강압과 관습적 상투성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뒤상의 예에서 보듯이, 현대 사회가 이러한 저항을 주변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기존 체계 속에 흡수해 버릴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⁶¹⁾

낭시의 에세이 「숭고한 봉헌」도⁶²⁾ 숭고에 대한 칸트의 논의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숭고를 미적 범주의 하나가 아니라 예술의 핵심적인 규정으로 고찰한다는 점도 료타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낭시는 숭고를 특정 예술운동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고, 현대 예술 일반의 본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예술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주제화하는 사유로 보는 것이다. "예술이 드러나고, 예술이 주어진다. 이 사실이 바로 숭

60) J.-F. Lyotard, 「숭고와 아방가르드」, *ibid.*, p.171.

61) 이러한 비판적 경고는 료타르의 연구 보고서 「포스트모던적 조건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1979)에도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이현록 역, 서울: 서광사, 1992)

62) J.-L. Nancy, 「숭고한 봉헌」, in: 「숭고에 대하여」, *op. cit.*, pp.49-102.

고다.⁶³⁾ 이 점에서 낭시는 확실히 료타르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칸트의 논의를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준다. 낭시는 칸트가 숭고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어떤 쟁점을 끌어들이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숭고는 미와 나란히 이웃한 범주가 아니라 “미를 변형시키고”, 또 “제시의 모티브 전체를 송두리째 변형 또는 전환”시키는 예술의 가장 핵심적인 차원이기 때문이다.⁶⁴⁾ 혹은 낭시는 미와 숭고의 차이를 미는 상상력의 “제시에 의해 제시되는 반면, 숭고는 제시의 움직임 그 자체이다”라고 요약한다.⁶⁵⁾ 낭시에 따르면, 숭고에 있어 상상력의 움직임은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는 경계선에서 상상력이 “저 자신에 도달하는”⁶⁶⁾ 움직임이며, 이때 숭고가 주체에게 물고 오는 감동은 “감각적인 것의 소멸에 대한 감각”이라⁶⁷⁾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숭고한 감동이 단지 쾌감의 수준에 머물고 미는 미의 향유와 달리, “파토스의 영역을 넘어 에토스의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추동하는 “규범으로서의 접촉 혹은 감동”이기 때문이다. 낭시는 이런 의미의 감동이 바타이유가 기술한 ‘지고한 예술’의 이중적 성격, 즉 ‘불안’과 ‘환희’를 동시에 표현하는 예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⁶⁸⁾

그렇다면 현대의 철학자미학적 논의에서 숭고의 문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미가 더 이상 예술철학의 중심적인 범주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사상사적 기록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미 실

63) *ibid.*, p.96, p.55.

64) *ibid.*, p.66.

65) *ibid.*, p.74.

66) *ibid.*, pp.78-79.

67) *ibid.*, p.86.

68) *ibid.*, pp.99-100.

러가 논고 「소박한 시와 감상적 시에 관하여」(1795/96)에서 당대 문학의 고유한 문제의식이 더 이상 아름다운 재현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열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인의 '내적 성찰'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어서 Fr. 슬레겔은 「이테네움」에 실린 논고 「시에 관한 대화」(1797)에서 '감상적인 것'과 '아라베스크'라는 두 개념을 당대 소설의 역사적 본질을 표현하는 범주로서 정당화하고 있다. 슬레겔은 또한 당대가 요구하는 '낭만적 시를 진보적인 보편성'으로 천명하면서, 이러한 시가 철학, 수사학, 비평을 자신 안에 통합하는 동시에, 시와 사회현실, 시와 구체적 삶 사이의 간극을 넘어서는 '시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⁶⁹⁾ 나아가 헤겔이 "아름다운 것을 이념의 감각적 현현"이라 정의할 때, 이 때 '아름다운 것'의 내용은 칸트적인 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헤겔의 '아름다운 것'은 단지 주체의 단편적인 조화로운 만족감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문화적 총체성을 포괄하려는 정신의 분투가 예술적 형식 속에서 감각적·구체적으로 현시된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우리는 괴테가 강조한 '특징적인 것(das Charakteristische)'의 범주, 헤겔 제자인 F. 로젠크라이브가 저술한 「추의 미학」⁷⁰⁾, 키에르케고어의 미적 실존 내지 시적 반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니체의 「예술가형이상학」이 함축하고 있는 숭고성의 계기⁷¹⁾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앞서 무관심성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던 19세기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변동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 변동은

69) 더 자세한 논의는 종고, 「예술과 문화 - 칸트, Fr. 슬레겔, 키에르케고어, 니체를 돌이켜보며」, in: 「인문학연구」 제39집,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0, pp.22-28 참조.

70) 이에 대해선, 김삼춘, 「추의 미학: 예술학적 의미」, 「미학예술학연구」 제27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8, pp.40-61 볼 것.

71)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볼 것. 임성훈, 「"예술은 긍정한다": 니체 미학에 나타난 숭고의 계기」, 「미학」 제59집, 한국미학회, 2009, pp.99-133.

“아름다움은 인간이 세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칸트의 계몽주의적 신뢰와 서구 시민사회가 지향했던 미적 예술을 통한 ‘문화적 종합’의 기획을 근본적으로 붕괴시켰다. 아울러 미적 경험과 예술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특히 사진, 축음기, 영화, 라디오와 같은 새로운 대중매체들이 등장함으로써 기존 예술 장르들의 형식과 내용이 심대한 변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현실, 예술과 재현의 관계,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문화적 기능 등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낳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현대 미학적 논의는 ‘역사적 아방가르드’부터 시작된 현대의 다양한 예술적 실천들을 보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체의 관습적이며 상투적인 ‘자기이해’에 충격을 가하고, 주체의 지각과 사유에 강력한 동요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합리성에 감각적으로 저항한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예술의 특징들을 ‘숭고의 미학’으로 포괄하고, 그 역사적 정당성을 구제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나오는 말

지금까지 『판단력비판』에 개진된 칸트의 미학적 논의 가운데 몇몇 의미 있는 개념들과 논점들의 현대적 수용을 살펴보았다. 칸트 미학이 그동안 아어온 ‘이후의 삶’에서 이 논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 역할의 구체적인 양상은 참으로 다채로웠다. 그것은 현대 사상가들이 직면했던 정치경제적 조

72) 대중매체의 철학적·미학적 도전에 대해선, 참고, 『영상의 환명성에 관한 대체질학적 연구』, 『미학』 제55집, 한국미학회, 2008, pp.155-201 참조.

건과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기대고 있던 예술 개념과 이들이 지향했던 예술적 실천의 의미에 따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미적 경험과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하면서, 본고가 논의했던 개념들과 논점들과 매우 생산적인 비판적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그럼으로써 현대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고 개념적 사유를 날카롭게 가다듬었으며, 무엇보다도 현대 주체와 현대 미학이 처해있는 역사적 위상을 보다 명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물론 칸트의 미학적 논의는 본고가 다루지 못한, 다른 많은 중요한 논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취미판단의 규정근거로서의 '목적 없는 합목적성', 취미판단의 반성적 지향점이라 할 '인식 일반', '공동감'의 이념, 예술철학적 정수를 담고 있는 '미적 이념', 미적 판단에 대한 '경험적 관념'과 '자성적 관념', 천재와 예술적 창조력(정신)의 문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라는 천명 등, 많은 중요한 논점들을 본고는 일부 언급만 했을 뿐 전혀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또한 그 동안 많은 사상가들에게 이론적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현대 미학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고 토론해야 할 사유의 원천임에 틀림없다. 이들의 사상적 잠재력과 현재성을 보다 깊이 가늠해 보는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투고일 2011년 2월 22일

심사일 2011년 3월 4일 — 2011년 3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1년 3월 15일

주제어 칸트 미학, 미학과 목적론, 무관심성, 미적 태도, 숭고의 미학, 미학과 정치

■ 참고문헌

- 공병혜, 『칸트 판단력 비판』, 울산대출판부, 1999
- _____, 『칸트 미학의 현대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제24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6, pp.49-74
- 김광명, 『칸트 미학의 이해』,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 _____, 『칸트 판단력 비판 연구』,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6
- _____, 『리오타르의 칸트 숭고미 해석에 대하여』, 『칸트연구』 제18집, 한국칸트학회, 2006, pp.121-152
- 김기수, 『칸트의 미적 세계관은 비판적인가 탈비판적인가』, 『칸트연구』 제24집, 한국칸트학회, 2009, pp.45-82
- _____, 『칸트의 미적 상상력에 대한 고찰』, 『미학예술학연구』 제31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10, pp.297-335
- 김동훈,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고양사: 마티, 2006
- 김신춘, 『추의 미학. 예술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제27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8, pp.40-61
- 김상현, 『미감적 판단의 이율배반과 미감적 합리성』, 『시대와철학』 제14집,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pp.29-52
- _____, 『칸트 미학에 있어서 감정과 상상력의 관계』, 『칸트연구』 제17집, 한국칸트학회, 2006, pp.1-26
- 김상원,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서울: 민음사, 1999
- 김석수,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현대 철학』, in: 『칸트와 문화철학』, 한국칸트학회 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김선옥, 『정치적 판단이론의 합리성 문제』, 『철학연구』 제52집, 철학연구회, 2001, pp.209-223
- 김양현,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관에 나타난 인간중심주의』, 『철학』 제55집, 한국철학회, 1999, pp.97-120
- 김혜련,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파주 : 한길사, 2010
- 박진, 『문화와 예술』, in: 『칸트와 문화철학』, 한국칸트학회 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박구용, 「자기보존과 자연보존」, 『철학』 제61집, 한국철학회, 2003, pp.239-259
- 박기순, 「랑시에르에서 미학과 정치」, 『미학』 제61집, 한국미학회, 2010, pp.59-93
- 박배형,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유희」, 『미학』 제53집, 한국미학회, 2008, pp.27-60
- _____, 「"부정적 현시"로서의 숭고」, 『미학』 제57집, 한국미학회, 2009, pp.37-64
- 임성훈, 「비판과 반성으로서의 미학」, 『미학』 제48집, 한국미학회, 2006, pp.165-208
- _____, 「환경미학」, in: 『미학대계』 제3권, 서울대출판부, 2007
- _____, 「"예술은 긍정한다": 니체 미학에 나타난 숭고의 계기」, 『미학』 제59집, 한국미학회, 2009, pp.99-133.
- 최성만, 「발터 벤야민의 인간학적 유물론」, 『뫼히너와 현대문학』 제30집, 한국뫼히너학회, 2008, pp.225-252.
- 최소인, 「칸트와 리오타르」, in: 『포스트모던 칸트』, 한국칸트학회 편,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 하선규, 「칸트 미학의 형성과정」, 『미학』 제26집, 한국미학회, 1999, pp.129-166
- _____, 「칸트 전미판기의 함목적성 개념」, 『철학연구』 제44집, 철학연구회, 1999, pp.213-238
- _____, 「의미 있는 형식(구조)의 상호주관적 지평」, 『칸트연구』 제14집, 한국칸트학회, 2004, pp.189-192
- _____, 「미감적 경험의 현상학적 재정의 : 헤르만 슈미츠의 신재현상학과 미학이론에 대하여」, 『미학예술학연구』 제23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6, pp.275-315
- _____, 「영상의 환영성에 관한 대체철학적 연구」, 『미학』 제55집, 한국미학회, 2008, pp.155-201
- _____, 「예술과 문화 - 칸트, Fr. 슈레겔, 키에르케고어, 니체를 돌이켜보며」, in: 『인문학연구』 제39집,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0, pp.22-28

- Adorno, Th., *Ästhetische Theorie*, ed. G. Adorno & R. Tiedemann, Frankfurt a. M.: Suhrkamp, 1989
- Aristoteles, 『시학』, 천병희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2
- Benjamin, W.,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in: 『발터 벤야민 선집』 제2권, 최성만 역, 서울: 김, 2007
- Biemel, W., *Die Bedeutung von Kants Begründung der Ästhetik für die Philosophie der Kunst*, Köln, 1959
- Böhme, G., *Für eine ökologische Naturästhetik*, Frankfurt. a. M.: Suhrkamp, 1989
- Böhme, H., *Natur und Subjekt*, Frankfurt. a. M.: Suhrkamp, 1988.
- Bourdieu, P., *La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구별짓기』, 최종철 역, 제1권, 서울: 새물결, 2005
- Bubner, R., *Ästhetische Erfahrung*, Frankfurt a. M.: Suhrkamp, 1989
- Bullough, E., "Psychical Distance as a Factor in Art and as an Aesthetic Principle", in: *Aesthetics - A Critical Anthology*, ed. G. Dickie, R. Sclafani & R. Robli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 Bürger, P., *Theorie der Avantgarde*, 「전위예술의 이해」, 최성만 역, 심설당, 1984.
- Cassirer, E., *Kants Leben und Lehre*(1921), Darmstadt: Wiss. Buchges., 1994
 _____, *Philosophie der Aufklärung*, Tübingen, 1974
- Courtine, J.-F., Deguy, M., etc., *Du Sublime*(1988), 『숭고에 대하여』, 김예령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Deleuze, G.,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1963), 『칸트의 비판철학』, 서동욱 역, 서울: 민음사, 2006
- Derrida, J., *The Truth in Painting*, trans. by G. Bennington & I. McLeod, Chicago/London: Univ. of Chicago Press, 1987
- Dickie, G., *Art and the Aesthetic*(1974), 『현대미학』, 오병남 역, 서울: 서광사, 1982
- Engelhard, K., "Kant in der Gegenwartästhetik", in: *Warum Kant beste?*, ed. D. H. Heidemann & K. Engelhard, Berlin/New York, 2004
- Ferry, L., *Homo Aestheticus*(1990), 『미학적 인간』, 방미경 역, 서울: 고려원,

1994

-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Bd.I, Tübingen, 1990
- Goethe, J. W., *Zur Farbenlehre*, 『색채론』, 장희창 역, 서울: 민음사, 2005
- Groh, R. & D., *Weltbild und Naturaneignung. Zur Kulturgeschichte der Natur*, Frankfurt a. M.: Suhrkamp, 1991
- Ha, Sun-Kyu, *Vernunft und Vollkommenheit*, Berlin/New York: Peter Lang, 2005
- Heidegger, M., *Nietzsche*, Bd.I, Pfullingen, 1961
- Höffe, O.(ed.), *Kritik der Urteilskraft*, Berlin: Akademie, 2008
- Kant, I., *Werkausgabe*, ed. W. Weischedel, 12 Bde., Frankfurt. a. M.: Suhrkamp, 1957ff.
- Kierkegaard, S., *Die Krankheit zum Tode*(1849),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역, 파주: 한길사, 2007
- Kluckhohn, P., *Das Ideengut der deutschen Romantik*, Tübingen: Niemeyer, 1961
- Korsmeyer, C., *Gender and Aesthetics*(2004), 『페미니즘 미학 입문』, 신혜경 역, 경성대출판부, 2009
- Kracauer, S., *Theorie des Films*, ed. K. Witte, Frankfurt a. M.: Suhrkamp, 1973
- _____, *Das Ornament der Masse*, ed. K. Witte, Frankfurt a. M.: Suhrkamp, 1977
- Kupperman, J., "Art and Aesthetic Experience", in: *BfA* 15, 1975
- Luhmann, N., *Soziale Systeme*, Frankfurt. a. M.: Suhrkamp, 1987
- Lukaćs, G., *Ästhetik*, 『미학』 제3권, 임홍배 역, 서울: 미술문화, 2002
- Liotard, J.-F., 『포스트모던적 조건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1979), 이현복 역, 서울: 서광사, 1992
- _____, 『숭고와 이방가르트』, in: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편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_____, 『숭고와 관실』, in: *Du Sublime*(1988), 『숭고에 대하여』, op. cit., pp.197-236.
- Marquard, O., "Kant und die Wende zur Ästhetik", in: *Zeits. f. phil. Fors.*

16, 1962

- Maturana, U., *Biologie der Realität*, Frankfurt. a. M.: Suhrkamp, 2000
- Nancy, J.-L., 「숭고한 봉헌」, in: *Du Sublime*(1988), 「숭고에 대하여」, op. cit., pp.49-102.
- Otto, M., *Ästhetische Wertschätzung. Bausteine zu einer Theorie des Ästhetischen*, Berlin: Akademie, 1993
- Pries, C.(ed.), *Das Erhabene. Zwischen Grenzerfahrung und Größenwahn*, Weinheim: Wiley-VCH, 1989
- Rancière, J., *Malaise dans l'esthétique*(2004), 「미학 안의 불편함」, 주형일 역, 고양사: 인간사랑, 2009
- _____, 「미학적 전복(La subversion esthétique)」, 홍익대학교 강연문(2008년 12월 3일)
- Ritter, J., *Landschaft. Zur Funktion des Ästhetisch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Münster, 1963
- Rothacker, E.,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Bonn : Bouvier, 1966
- Schiller, F., "Über die naive und sentimentale Dichtung", in: *Schillers Werke*, Bd.4, Frankfurt a. M.: Insel, 1966
- _____,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1795),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 안인희 역, 서울: 창하, 1995
- Schmitz, H., *Was wollte Kant?*, Bonn : Bouvier, 1989
- _____, *Der unerschöpfliche Gegenstand*, Bonn : Bouvier, 1990
- Schopenhauer, A.,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Bd. I/II, Stuttgart: Reclam, 1987.
- Schulte, G., *Immanuel Kant*, Frankfurt a. M.: Campus, 1991
- Stolnitz, J.,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Criticism - A Critical Introduction*(1966), 「미학과 비평철학」, 오병남 역, 서울: 이론과실천

■ Zusammenfassung

Kants Ästhetik als lebendige Gegenwart (I)

– Überlegungen zu der Verbindung von Ästhetik und Teleologie, dem Begriff der Interesselosigkeit und zur Ästhetik des Erhabenen

Ha, Sun-Kyu

Professor, Hongik University

Diese Abhandlung hat zum Ziel, unter vielen bedeutsamen Argumenten der Kritik der Urteilskraft drei rege rezipierten unter die Lupe zu nehmen und ihre bleibende Aktualität hervortreten zu lassen. Diese sind die Verbindung von Ästhetik und Teleologie, den Begriff der Interesselosigkeit und die Ästhetik des Erhabenen. Es soll herausgestellt werden, wie und von welcher theoretischen Perspektive her die moderne ästhetische Forschung die drei Argumente bisher interpretiert und ihnen neue theoretische Akzente verliehen hat. Allerdings will diese Abhandlung nicht voreilig beurteilen und Entscheidung treffen, welche Deutungen wahr oder falsch seien. Vielmehr will sie ihre Mehrdeutigkeit und offene Deutungsmöglichkeit wahren, um ihr theoretisches Potenzial deutlich sichtbar zu machen.

Die Verbindung von Ästhetik und Teleologie stellt nicht nur eine Eigentümlichkeit der Komposition der dritten Kritik dar, sondern markiert auch historisch unverwechselbare Stellung der Kantischen Gedanken im ganzen. In geistesgeschichtlicher Hinsicht zeigt sie die Situation der elementaren Entzweiung der modernen Subjektivität und zugleich deren praktisch-existentiellen Versuch, diese Situation zu überwinden. Dass das integrative Denken, das dieser Verbindung zugrundeliegt, heute bei vielen theoretischen Ansätzen, z. B. die Systemtheorie von U. Maturana oder N. Luhmann, die ökologische Verantwortungsethik von H.

Jonas sowie die Naturästhetik von H. und G. Böhme, neue Renaissance erfährt, daran wird nochmals deutlich, dass die Kantische Verbindung von Ästhetik und Teleologie immer noch viel zu sagen hat.

Ohne Zweifel gehört die Analyse des Begriffs der Interesselosigkeit zu den bleibenden Errungenschaften der Kantischen Ästhetik. Er ist auch in der modernen Ästhetik der zwei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ein sehr aktuelles Thema geblieben. Im großen und ganzen lassen sich vier Richtungen unterscheiden, in denen ihn die moderne Ästhetik erörtert hat. Die erste ist die sog. Theorie des ästhetischen Einstellung, und die zweite zieht die historische Grundlage des Begriffs der Interesselosigkeit in kritische Betrachtung. Dann versucht die dritte, ihn direkt als eine sozial-historische Ideologie zu entlarven und zu dekonstruieren, und schließlich besteht die vierte darin, von verschiedenen philosophischen Standpunkten aus seine theoretische Bedeutung neu zu bestimmen und zu rehabilitieren. Damit zeigt sich, dass die Kantische Interesselosigkeit immer noch fähig ist, ästhetische Reflexion und theoretisch produktive Diskussion zu entfachen.

Die Ästhetik des Erhabenen ist wohl das am häufigsten behandelte Thema unter den vielen Themen der dritten Kritik, das in den letzten dreißig Jahren in bezug auf moderne Kunstphilosophie sehr starke Aufmerksamkeit auf sich gezogen hat. Die vorliegende Abhandlung erläutert die Deutungen von drei repräsentativen Philosophen, nämlich Th. Adorno, J.-F. Lyotard und J.-L. Nancy. Und zwar versucht sie klar zu machen, wie diese drei jeweils von welchem eigenen Standpunkt aus das Kantische Erhabene einer produktiven Relektüre unterzieht und dadurch es zu einer kunstphilosophischen Grundkategorie erneuert.

Keywords: aesthetics of Kant, aesthetics and teleology, disinterestedness, aesthetic attitude, aesthetics of the sublime, aesthetics and politics